

# 민간조사원(PI) 관련 언론보도

한국경제신문 2008.09.27

## 대학에 '탐정학 과정' 개설한 유우종 민간조사협회장

"법원도 못푸는 억울한 사연 해결하죠"

"사설탐정이라고 불리는 민간조사원(PI·Private Investigator)들은 흥신소와 다릅니다. 흥신소와 심부름센터는 불법도 자행하지만 우리는 합법적인 일만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장(사진)은 26일 "경찰이나 법원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 민간조사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민간조사협회는 국내에 유일한 민간 조사 관련 단체로 2000년부터 이론·실무 시험과 논문 제출 과정을 통과한 이들에게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법적으로 해결되면 좋지만,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가 성행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민간조사원이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탓도 크다고 봅니다. "



유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50명의 민간조사원이 활동하고 있다"며 "주로 교통사고·의료사고 등 보험 관련 조사(손해사정인)나 소송에 따른 증거자료 수집(변호사 보조),기업체의 산업스파이 조사 등이 주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소재 파악,지식재산권 보호부터 도청이나 감청 장치를 탐색하는 것까지 민간조사원의 업무는 다양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민간 조사원은 전직 경찰관이나 손해사정인 출신이 대부분이다.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이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도 민간조사원들이 특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 조사비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사람을 찾는 일은 500만~1000만원 수준,해외 도피 범죄인을 찾는 일은 3000만원 이상,교통사고 조사 업무는 1500만~2000만원 선이라고 유 회장은 밝혔다.

유 회장이 민간조사업에 뛰어든 데는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막내삼촌이 의문사로 죽었습니다. 석달간 삼촌이 꿈에 나와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결국 추락사로 처리됐는데 탐정이 돼서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독일 등 해외에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다가 한국에 들어와 민간조사협회장까지 맡게 된 거죠."

유 회장은 한세대와 경성대 평생교육원에 최근 '민간조사 최고전문가 과정'을 개설하는 등 대외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부터는 '민간조사업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났으나 아직 구체적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그는 이 때문에 조사원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사설 탐정'이라는 명칭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활동 중인 민간조사원은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민간조사원의 역할도 무한히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상은 기자/최창규 인턴(한국외대 2학년) selee@hankyung.com

## '우리시대 탐정' 민간조사원 따라잡기

탐정 홈스·김전일처럼 정확히 범인 콕 집어내려  
학구열 불태웠던, 지난날 꿈 교육 뒀엔 꿈 아닌 현실로!

부산에 '탐정학교'가 생겼다? 지난 18일 경성대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민간조사전문가 양성과정'이 바로 그것. 한국PI(Private Investigator·민간조사원)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10주간의 이론 및 실무교육을 통해 말 그대로 민간조사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 수강생 수 10명 직업·나이 제각각

25일 경성대 중앙도서관 건물 14층. 개강일에 이어 두번째 수업이 있는 날이다. 수업이 시작되는 오후 1시를 즈음해 강의실에는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라서일까? 수강생의 수는 10명뿐이었지만 연령도 직업도 제각각이었다.



고희(古稀)의 나이에 직접 RV카를 몰고 다니는

'젊은 오빠' 박재호(71)씨는 셜록 홈스를 동경했던 지난 시절의 동심이 떠올라 수강신청을 했다. '좋아하면 닮는다'더니, 베이지색 헌팅캡을 쓰고 콧수염을 기른 모습이 서양 담뱃대만 물면 영락없는 셜록 홈스다. 수강생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어 이것저것 개인신상을 여쭙봤지만 '많이 알면 다친다'신다. 까칠한 포스만 으론 이미 홈스를 넘어섰다.

40대 이상에게 동경하는 탐정이 셜록 홈스라면 요즘 20대들은 다르다.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동희(27)씨는 수년간 만화방에 수업료를 지불하고 소년탐정 김전일과 보험수사원 다이치 키튼으로부터 날카로운 추리력을 사사(?)했다.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범인은 이 방 안에 있다. (김전일이 사건을 해결하는 장면에서 어김없이 날리는 멘트)" 그런데, 이걸 여~영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실전 '필살기'를 익히기 위해 강의실 문을 두드렸다. 취업준비로 하루 24시간도 모자를 시간에 뭐하는 짓이냐고? 졸업 후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 내린 결론이다. "막연한 이야기 속 탐정의 모습만으론 나의 적성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 일단 '부딪혀 보자'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게 됐어요. 주중에는 남들처럼 영어공부 등 취업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명한 판단이다. 사실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탐정의 모습이란 것이 현실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20세기의 셜록 홈스는 명석한 추리력만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실의 탐정은 그렇지 않다. 은퇴경찰 에르쿨 포아르가 늘상 이야기하는 '회색의 뇌세포' 못지않게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범죄유형도 다양해지고 그 수법도 최첨단을 달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 또한 복잡하기 그지없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범죄자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관련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섭렵해야 할 교육과목 수두룩

그래서 이들이 섭렵해야 할 교육과목들도 교통사고법에서부터 사이버범죄, 기업회계부정 등 다양하다못해 끝이 없다. 개강일이던 지난 18일의 강의 주제는 '보험범죄'. 복잡한 보험법과 실제 법망을 피해가는 여러 보험범죄 유형을 공부했다. "마치 고시공부를 하는 것 같았다." 어느 수강생의 말이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이날의 주제는 '사건현장실습'. 범죄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채취하고 범인을 쫓는 시간이다. 평소 소설 속 탐정의 이미지와 가장 비슷한 교육시간. 그래서 수강생들의 기대에 찬 두 눈은 초롱초롱 빛났다. 약간의 이론을 거쳐 드디어 실습시간. 수강생 모두 모의범죄현장으로 이동한다. 이론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복도 건너 교수연구실엔 미리 पुलिस라인을 설치했다.

## 모의 범죄현장서 단서 찾아보고



먼저 각자의 역할을 나눈다. 범죄현장을 기록하는 카메라 촬영도 중요한 임무. 그러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반면 지문 채취는 가장 인기있는 역할. 소설 속 사건의 기록자였던 왓슨이 되기보단 사건을 해결하는 홈스가 되고 싶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건현장을 이 잡듯이 뒀다.

테이블 유리, 빈 음료 캔, 컴퓨터 키보드 등등, 방 안 구석구석에 범인의 지문을 찾기 위해 감식용 분말가루를 묻힌다. 생각처럼 쉽지 않다. 10여분이 지나서야 마침내 음료 캔에서 첫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다. 보물찾기에서 보물 쪽지라도 발견한 초등학생처럼 큰 소리가 터져나온다. "범인의 지문을 찾았다." "그게 왜 범인의 지문인데?" 그렇다. 이제 겨우 범죄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의 지문을 찾은 것뿐이다.

단순히 지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지문이 나왔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서류철이나 영수증 조각에서 발견되는 지문은 가짜 계약서를 이용한 사기극의 전모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천 조각, 영수증 등 사소한 물건들이 종종 미궁에 빠진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증거품 봉지 안에 주워 담는다. 이후 종이로 된 것들은 다시 특수약품을 사용해 지문 검사를 실시한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영수증을 특수약품으로 적신 다음 다리미로 다렸더니 거짓말처럼 빨간색으로 지문이 드러났다. 영수증 속의 지문. 일단 범죄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영수증 속의 물건을 샀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이처럼 사소한 단서들을 모은 후 그 조각들을 이리저리 조합해 큰 그림을 짜맞추는 과정이 바로 추리요,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얼마나 많은 퍼즐 조각을 찾느냐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관건. 그만큼 현장조사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같은 일에 유달리 능숙한 수강생이 한 명 있었다. 추리해(59·가명)씨. 알고 보니 부산 모경찰서 간부시란다. 아니 경찰이 여기에 웬 일? 마치 고등학교 선생님이 과외학원의 학생으로 앉아 있는 느낌이랄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 경찰 사각지대 메울 '민간조사원'

퇴직을 2년여 남겨 둔 추씨는 조만간 '민간조사업법'의 법제화와 함께 민간조사원의 활동 영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퇴직 후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경우다. 그가 퇴직 후의 진로로 민간조사원을 택한 데는 유사한 직업적 배경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경찰 생활을 하면서 민간조사원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기 때문이란다.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 동안 민간조사원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경찰 공권력이 닿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인력 운용의 문제죠.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가 그러한데, 전체 사회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력을 개인간의 사적인 시비를 가리는데 집중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 틈새를 민간조사원들이 메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비 흥스들, 세상에 발 디디다

10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10명의 수강생들 중 일정 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민간조사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시험에 합격하면 사회 구석구석에서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며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다. 물론 10명 모두가 흥스가 될 순 없을 테다.

굳이 명탐정이 되지 않아도 좋다.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남은 것, 그것이 아무리 있을 법하지 않아 보어도 결국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흥스의 말은 범인을 쫓는 데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흥스를 꿈꾸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사소한 일상의 진실을 찾아 돋보기를 들어댄다.

글=김종열 기자 bell10@busanilbo.com 사진=정종희 기자 jjh@busanilbo.com

# “걸는 경찰, 뛰는 변호사 위에 나는 P I (민간조사원) 있다”



입체취재-사설탐정 양성소 ‘한국민간조사협회’를 가다

글 이수영 기자 severo@ilyoseoul.co.kr

사진 이병화 기자 photolbh@ilyoseoul.co.kr

2001년 일본 동경에서 유학중이던 한국인 여대생이 피살됐다. 경찰은 피살자의 남자친구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A씨는 풀려났다. 피해자의 죽음이 미궁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순간, 홀연히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명탐정. 일본으로 건너간 명탐정은 소속 요원들과 함께 공장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셔츠 단추 한 개를 찾아냈다. A씨가 사건 당일 입고 있던 옷의 것과 똑 같은 것이었다.

A씨는 떨어진 단추를 새로 달고 경찰을 속였지만 명탐정의 예리한 수사 본능까지 피해갈 수는 없었다. 명탐정은 증거물로 입수한 단추의 제조날짜를 분석해 문제의 단추가 사건 당일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떨어트린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마치 소설 속의 한 장면 같은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한 명탐정은 다름 아닌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장이다. 국내 최초 국제 공인 민간조사전문가인 유 회장은 한국 사설탐정업계의 대부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판 셜록 홈즈’ 양성소인 한국민간조사협회를 찾아가 대한민국 사설탐정업계의 생생한 현장을 고스란히 담아봤다.

지난해 9월 부산 경성대 평생교육원에 국내 최초로 사설탐정 양성 과정이 개설됐다. 한국민간조사협회(회장 유우종)와 산학 협력을 통해 개설된 ‘민간조사 최고전문가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민간조사전문가(Private Investigator·이하 PI)는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증거 수집 등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사립탐정’을 말한다. 국내 최초 국제 공인 PI인 유 회장이 직접 강단에 서는 이곳에는 유능한 명탐정을 꿈꾸는 수강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분당에 위치한 한국민간조사협회 본원에서 만난 유 회장은 “경찰이나 법원이 풀어주지 못하는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PI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 “삼촌의 억울한 죽음 밝히지 못해 한…”

유 회장이 사설탐정업계와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30여년.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그가 ‘국내 1호 사설탐정’으로 변신한 데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다. 그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막내삼촌이 서울 모 호텔 테라스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것이다.

유 회장은 “당시 경찰은 삼촌이 추락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주변 정황이나 지인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전혀 얼토당토않은 수사결과였다”고 말했다. 불과 2층 높이밖에 안 되는 곳에서 난간에 기댔다 실수로 떨어져 죽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와중에 ‘어머니!’라는 삼촌의 다급한 비명을 들었다는 목격자도 나왔었다는 얘기가.

그는 “난 아직도 삼촌이 누군가에게 살해됐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 삼촌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여전히 한이 된다”고 토로했다.

삼촌의 죽음 이후 대학과 군복무를 마친 유 회장은 1990년대 초 본격적으로 해외를 돌며 사설탐정이 되기 위한 수련을 시작했다. 독일과 일본, 미국 등을 돌며 공인 기관 시험을 통과한 끝에, 꼬박 10년 만에 그는 ‘한국 최초의 사립탐정’이 돼 금의환향할 수 있었다.

유 회장이 국내 최초의 사설탐정 협회인 ‘한국민간조사협회’를 설립한 것은 지난 2000년.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와 협회 요원들이 해결한 사건의 양도 어마어마하다. 2001년 일본 교포 사회를 들쭉신 여대생 피살사건부터 시작해 유력 공무원 자녀의 결혼 사기 사건도 유 회장의 손에서 마무리됐다.

유 회장은 “기업 내 산업스파이 색출이나 각종 보험사기 범죄, 실종자 수색과 해외 도피사범 추적 등 협회

요원들이 담당하는 사건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일부 요원들은 아예 대기업 법무팀이나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일선 경찰서 소속으로 활약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 “조폭 협박 받던 유명 방송인 경호까지 맡아”

한국민간조사협회에 사건을 의뢰한 고객의 명단도 상당히 화려하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회사인 S 기업을 비롯해 내로라하는 연예인과 정치인도 민간조사원들의 힘을 빌린다.

유 회장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 조약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유명인사들의 의뢰를 받아 왔다”며 “예를 들어 모 댄스가수는 자신의 허락 없이 나이트클럽 출연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한 업주를 수소문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한 유명 방송인은 채무관계에 있는 조직폭력배의 협박을 받아 협회에서 직접 경호까지 담당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정식 PI로 활동하고 있는 정예멤버는 약 500여명. 이 가운데 20여명은 실제 국가정보원(국정원) 요원 출신이다. 또 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들도 속속 전문 PI로 변신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PI자격증을 취득한 이영철(58·부산)씨도 30년 경찰 생활을 접고 사설탐정으로 전향한 경우다. 일선 경찰서와 부산지방경찰청을 거쳐 지난해 퇴직한 이씨는 30년 동안 대공수사와 보안과 요원을 경험한 베테랑 수사관이다.

### 전직 수사관들 줄줄이 PI로 변신

이씨는 “작년에 퇴직한 뒤 우연히 부산 경성대 사회교육원에 민간조사원 과정이 설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과정을 이수했다. 30년 동안 수사팀에 몸담고 있었지만 PI라는 직업은 그 자체만으로 매력이 넘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선 경찰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틈에 사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PI는 철저히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요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순수한 민간인 보다 수사 경험자들이 PI에 진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국내에서 PI의 활동과 관련된 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인 출신 초짜 PI가 의욕만 앞서 수사를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는 “수사 경험이 있는 전직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국정원 직원 등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능수능란하게 주무를 수 있다”며 “불법 흥신소와 심부름센터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공인된 PI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문의 : 한국민간조사협회 (전화 0502-707-7007)



PI 요원들이 무선감청장비를 이용해 불법도청장치를 색출하고 있다.(윗줄 좌)

유 회장과 PI요원들이 전화기에 묻은 지문을 채취하고 있다.(윗줄 우)



PI 요원이 증거물로 수집한 담배 궤초를 살쳐보고 있다.(아랫줄 좌)

전직 경찰관인 이씨가 동료 PI 요원과 함께 서류에 묻은 지문을 채취하고 있다.(아랫줄 우)

Copyright 일요서울

## "설록 흥즈 같은 탐정? 우리 민간조사원"

[인터뷰]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 협회장

얼마 전 신문지면에 '사설탐정'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김평우 변호사가 변호사들의 사설탐정업 진출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김평우 변호사는 신임 변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유년시절부터 추리소설을 즐겨읽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탐정'이라는 직업을 꿈꾸어 보았을 것이다. 작은 자신만의 사무실에서 사건을 의뢰하는 고객을 만나고, 날카로운 분석과 추리로 맡은 일을 해결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 꽤 매력적이고 보람있는 일 아닐까.

### 민간조사원, 사설탐정과 는 달라요

추리소설에서 형상화된 탐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 단어에는 왠지 남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뒷조사나 하고 다니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민간조사원(PI : Private Investigator)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민간조사원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 각종 분쟁들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사하고 분석한다. 때로는 정부, 검찰, 경찰 등의 공권력과 협조하여 개인이나 단체, 기업의 부정사실조사와 증거수집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요소는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런 민간조사원들이 활동한다. 우리나라에는 약 500명의 민간조사원들이 있고 해마다 약 60여 명 가량이 증원되는 추세다. 아직까지 관련법안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위임을 받아서 활동을 해야만 하는 제약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이 법안이 없는 상태다. 영국도 2년 전에 통과시켰고, 일본도 1년 전에 만들었다.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무부, 행자부, 검찰청, 경찰청에서 모두 느끼고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무산되었지만 18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거라고 본다. 지금같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만 뒤쳐져서야 되겠나."

지난 달 16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국민간조사협회(www.pikorea.org) 사무실에서 만난 유우종(45) 협회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유 회장은 고등학교 시절 외상촌의 의문사를 보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 민간조사원들은 어떤 활동할까

당시는 민간조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다. 유 회장은 그때 자신이 생각했던 이미지는 탐정이자 맥가이버였다고 웃으면서 말한다. 그 후에 20여 년 가까이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해외의 민간조사원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정착시키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현재의 한국민간조사협회와 한국민간조사교육원이다. 민간조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주최하는 민간조사 전문가교육과정을 우선 수료해야 한다. 이 교육은 한국능력협회, 한국범죄수사감식협회, 한국법과학연구소, 대한손해보험협회, 한국산업보안연구소의 후원 아래에서 진행된다.

"민간조사라고하면 사람들은 무슨 미아찾기, 가정사건,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 그건 전체에서 아주 일부에 해당한다. 산업스파이, 사이버범죄, 해외도피사범, 보험사기, 지적재산권 등이 민간조사원들의 주영역이다."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민간자격증인 PI자격증을 발급받은 수료생들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도 이런 분야라고 유 회장은 말한다. 보험회사의 조사원이 되거나 기업의 법률팀 또는 법률사무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니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개인사무실을 열어서 의뢰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유 회장이 그런 대표적인 경우다. 최근에는 산업스파이, 지적재산권 또는 기업의 부정사건 조사 등의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민간조사원 전문가 과정은 인성교육, PI법학개론, 범죄심리학부터 시작해서 지문감식, 보험범죄, 기업회계부정조사, 실탄사격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면서 총기는 소지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민간조사원도 총을 소지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실탄사격교육을 왜 하나. 어떤 의식적인 차원이다. 사건을 의뢰받아서 조사할 때 나약해진다거나 또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 실탄사격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다."

## 어떤 사람들이 민간조사원 되나

전문가 교육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범죄사실이 없는 남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현재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응시하고 있다. 오래 전에 설렘 흥즈의 로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늦게나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사건을 의뢰받아서 현장으로 조사를 나갈 때 민간조사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게 신분을 밝힐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거나 사건조사에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일반인들에게 민간조사원은 아직도 낯선 개념이기 때문이라는 것.

"사건 조사를 끝내면 항상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만 조사를 해야 한다. 빨리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거다. 어떤 관계자는 말하기를, 조사할 일 있으면 누구나 나서서 조사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한다. 누구나 조사하면 안된다. 정해진 규칙 내에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해야 한다."

업무의 특성상 신변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단다.

"2000년경만 하더라도, 보험사기사건에 조폭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어서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다. 경호업무라면 그만큼의 위험이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신을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적어진다."

하지만 어떤 직업에 몸을 담고 있건 자신의 신변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법. 유 회장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일을 생각하면서 몸을 단련해왔고 특전사에서 군생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가 태어난 곳은 경남 거창, 그곳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 보고 겪었던 일들, 그때 느꼈던 것들을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다.

"시골 법원 앞에 보면 옛날에 말하는 그런 해결사들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 걸리면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뀌는 것은 순간이다. 그런 식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구치소에 다녀오는 경우가 있다. 시골사람들 단순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한번 다녀오고 나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리스크가 발생한다. 우리 삼촌의 일도 그렇다. 내가 보더라도 추락사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처리됐다. 거의 3개월 동안 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이 일을 구상했다."

## 사설탐정업에 진출하려는 변호사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평우 변호사가 후보 시절 변호사들의 사설탐정업 진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설탐정이란 것은 현재의 민간조사원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럼 기존의 민간조사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유 회장은 의외로 담담하게 말한다.

"변호사라고 해서 베테랑 민간조사원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다. 기업이나 일반인이 누구한테 의뢰할까. 변호사라고 해서 의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같이 갈 수 있다면 좋다. 모자란 부분은 서로 채워주고."

만일 법제화가 된다면 변호사의 위임장이 없어도 의뢰된 사건을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조사하되 검찰의 관리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불평등이 더 커지는 않을까. 돈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변호사나 민간조사원을 찾기가 힘들테니까. 유 회장은 그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관련법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예산을 따로 비치해두면 된다고 한다.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의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따로 책정된 예산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최근 경기서남부 연쇄살인과 같이 묻지마 살인이 종종 일어나고 범죄도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해간다. 민간인의 신분으로 그런 범죄와의 한판승부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민간조사원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파이프 담배를 물고 조용히 사색하는 셜록 홈즈의 이미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전문직이면서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고소득을 올릴 수도 있는 직종이다. 유 회장은 민간조사원들이 계속해서 자기 계발을 할 것을 강조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법과학, 지적재산권, 보험사기, 법률조사 등 자기만의 주특기를 하나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이다.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실무를 하면서 배운 노하우를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처음 입학할 때 인성평가에서 70점을 넘지 못하면 아예 자격시험을 못보게 한다. 정도와 중도, 선비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이 일이다."

## '사설탐정'(민간조사원)이 뜬다

소설 속 '명탐정'처럼 해결해 드립니다  
"공권력 사각지대 완벽히 메우는, 우리는 셜록 홈즈"  
엄격한 과정 수료한 민간조사원, 새 인기 직종 부상  
경찰 등과 협조해 각종 사건·사고 해결에 뛰어 들어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심통을 부리던 3월 어느 날, 대의 한 건물에 건장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디에서나 는 보통 사람들. 대학생이라기에는 조금 나이가 들어 보 등을 배우러 온 평생교육과정 수강생이라기엔 분위기가 왠지 진지했다. 그들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는 장비를 보니 궁금증은 더욱 더해진다. 커다란 돋보기에 이상한 장치가 달린 안경, 용도를 짐작하기 어려운 기계까지. 게다가 P라고 적힌 로고와 태극기가 부착된 검은 색 조끼까지 걸치니 은밀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요원처럼 보이기도 한다.

알고 본즉 이들은 이른바 '사설탐정'. 부산에 처음 개설된 민간조사원 양성 과정을 이수해 정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근데 대체 우리 사회에 '사설탐정'이 활동하고 있기는 하는 것일까. 사건을 해결한답시고 흥신소 같은 곳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사회문제가 된 것을 많이 봐온 터라 영 미덥지가 않다. 취재진의 이런 떨떠름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이들은 정색을 한다. 기존의 질이 좋지 않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누구나 쉽게 '사설탐정'이 될 수 있다면 누가 두 달동안 자기 돈 써 가면서 교육을 받겠느냐고. 과연 눈치들은 빠르다. 그러니 이런 일에 뛰어들기는 했겠지만.

내친 김에 이들은 한마디를 덧붙인다. 누구나 '탐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는 있지만 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따라서 편의상 이들을 부르는 '사설탐정'이라는 말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지만 마냥 반가워 하지는 않는다. 탐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왠지 좋지 않은 어감때문이다. 이들의 정식 직함은 '민간조사원'.

그러나 '사설탐정'이면 어떻고 '민간조사원'이면 또 어떤가. 그 자체로 묘한 매력을 주는 것을. 그들의 스텀을 들여다봤다.



유우중 한국민간조사협회장(오른쪽)과 한 민간조사원이 지문감식 훈련을 하고 있다.  
박수현 기자 parksh@kookje.co.kr

어릴 때 추리소설을 많이 읽었던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셜록 홈즈 같은 멋진 탐정을 꿈꾸게 마련. 텔레비전에 익숙한 세대라면 맥가이버, 혹은 가제트 형사를 떠올릴 수도 있다. 경찰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멋들어서 해결한 뒤 여유있게 사라지는 모습은 어린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했던가. 하지만 어찌보면 탐정이라는 것은 성인들에게도 '한 번은 해 봤으면 하는' 꿈의 직업일지도 모른다.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추리영화나 추리소설의 인기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련한 향수일지도 모른다.

부산 남구 경성  
흔히 볼 수 있  
였고, 컴퓨터

'사설탐정' 또는 '사립탐정'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이해를 더 쉽게 만드는 '민간조사원'은 영어 약자로 'PI(Private Investigator)'라고 부른다. 바꿔 말하자면 공권력이 미치는 못하는 여러가지 사건이나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관련 법규가 없다.

## ■삼촌의 한을 풀고자

우리나라 민간조사원 분야의 선두주자는 한국민간조사협회(www. pikorea.org)의 유우종(45) 회장이다.

그가 이 분야에 뛰어든 계기는 좀 특이하다. '어릴 때부터 탐정이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가슴 아픈 사연이 숨어 있다. 그는 시골(경남 함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대부분의 시골이 그렇듯 특별히 경찰서나 법원을 찾는 일은 드물었다. 가끔씩 법원 주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민들을 보기는 했다. 법률 브로커에 걸려 졸지에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종종 목격했다. 하지만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유 회장에겐 그런 광경은 그저그런 것. 별다른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가 전해진다. 서울에 살고 있던 막내 삼촌이 의문을 죽임을 당했다는.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할 때 추락사가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삼촌이 떨어졌다는 곳은 겨우 건물의 2층 높이 정도. 사람이 추락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일이 안풀리려면 접시물에도 코가 박혀 죽는 것이 세상사'라지만 유족들은 사인을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었다. 그도 마찬가지. 경찰의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삼촌은 유 회장의 꿈에 3개월이나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한 번 내린 결론을 시골의 장삼이사들이 뒤엎을 수는 없는 노릇. 속은 쓰리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그의 미래는 그때부터 달라진다. 공권력이 해결을 못한다면 자신이 나서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겠다는 것. 대학에서는 전기과를 다녔지만 틈틈이 관련 서적을 읽었고 졸업 후에는 특전사 간부로 입대해 정보 및 조사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는 일본과 독일 호주 영국 등 민간조사원 제도가 활성화된 나라들을 돌아 다니며 공부를 계속했다.

10년 가까이 해외에서 이런 생활을 한 유 회장은 지난 2000년 귀국한 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조사원 단체인 '한국민간조사협회'를 세웠다. 그 이면에는 삼촌의 억울함은 끝내 풀지 못했지만 순진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뀌는 일만큼은 더 이상 막아야겠다는 뜻이 있었다.

유 회장은 지난 2001년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살인사건을 해결한 전력이 있다. 그 해 일본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우리나라 여대생이 시체로 발견됐다. 여대생의 남자친구가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증거가 없었다. 사건 의뢰를 받은 그는 현장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남자용 셔츠의 단추를 발견한다. 그 단추는 용의자가 당일 입었던 옷의 단추와 동일한 것. 하지만 용의자의 옷에는 떨어진 단추가 없었다. 벌써 새 단추로 바꿔단 것. 그렇지만 유 회장은 현장에서 습득한 단추의 제조날짜 등을 근거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그것이 사건 당일 용의자가 여대생을 죽이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임을 확인했다. 오랫동안 체득한 사건에 대한 집요함이 일본 경찰의 수사력을 뛰어 넘는 순간이었다.

유 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협회의 활동은 다양하다. 산업스파이 색출에서부터 해외도피사범 추적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손으로 해결한다. 유 회장을 포함해 17명이 일하고 있는데 모두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술한 사건을 해결했다. 사건을 의뢰한 사람들 중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은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가 행여 자신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해 은밀한 해결을 부탁하는 경우다.

## ■설득 흐름을 꿈꾸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원 양성 과정이 개설된 곳은 모두 세 곳. 경성대와 한세대 평생교육원, 그리고 한국민간조사협회에서 자체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국민간조사협회는 두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었고 유 회장은 현재 경성대 평생교육원 '민간조사 최고 전문가 과정'의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육기간은 총 8주로 교통사고, 사이버범죄, 기업회계부정, 보험범죄, 해외도피사범 조사방법, 인성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고 법과학과 범죄심리학, 장비학, 정보조사 개론, 지문감식, 실탄사격법 등도 이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총기규제가 엄격한 곳에서 웬 실탄사격? 민간인의 총기소지는 불법 아니던가. 물론 실제 총기를 들지는 않는다. 엄격한 교육을 위한 의례적인 과정일 뿐이다.

교육이 끝났다고 모두 민간조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경성대 평생교육원에서 제1기로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10명 만이 이 시험을 통과했다. 전국적으로는 500여 명가량이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갖고 있다. 21일부터는 경성대 평생교육원에서 제2기 과정이 진행된다.

올해 59세의 이탐정(가명) 씨는 전직 경찰 간부. 부산경찰청 관내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옷을 벗은 뒤 민간조사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경성대 평생교육원 민간조사 최고 전문가 과정 1기생으로 수료한 후 지난해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획득했다. 이 씨가 보건대 민간조사원은 자신과 같은 경찰 출신이 퇴직 후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직업이다. 관련 일을 했던 사람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잘 알고 있어 불법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또 아무리 교육내용이 충실하다고 할지라도 이 분야의 문외한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자신도 현직시설 인력난 등의 문제로 경찰이 세세한 부분까지 수사를 하지 못한 점을 보고는 안타까워 했던 적이 있어 앞으로 관련법규만 마련된다면 이런 틈을 메울 수 있는 민간조사원이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경원(46) 씨는 현직 변호사 사무장. 그가 민간조사원이 된 것도 '공권력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솔하게 보아왔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거나 추적을 하기는 힘들어 사건 의뢰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이런 수사기법 등을 알고 있으면 선량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 씨의 생각이다.

특전사 간부 출신의 김찬일(37) 씨는 어릴 때부터 탐정일에 관심이 많았다. 군대에서 첩보교육 등을 이수하면서 이 분야에 더욱 흥미를 느꼈던 차에 민간조사원 양성 과정이 생기자 주저없이 등록을 했다. 아직 젊은 나이인지라 만약 민간조사원 관련 법규가 제정된다면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는 복안도 없지는 않았다.

이들이 꿈는 민간조사원 활동의 장점은 시간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 해야할 일이 많아 사안 하나에 전력을 다하기가 힘들다 민간조사원은 의뢰된 한 가지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어 훨씬 효율이 높다고 본다.

갑자기 엉뚱한 물음 하나가 떠올랐다. 얼핏 생각하기에 민간조사원이라면 어느정도의 완력은 있어야 될 듯. 범죄용의자에게 맞고 다녀서는 '사설탐정'의 체면이 구겨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모두가 손을 내젓는다. 무술실력은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라며.

민간조사원이 되는 데 특별한 자격은 없다. 고졸 이상의 학력이나 범죄사실이 없으면 된다. 그러나 직업의 특성상 3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이 문을 두드린다. 지원자 가운데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도 더러 있다.



가상 사건 현장에서 타액이 묻은 담배꽂초 채취 등 증거를 수집을 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협회 회원들.

### ■ '넘어야 할 산' 많은 민간조사원

- 아직 법제화 안돼 신분 및 활동 제약 문제

민간조사원의 신분은 말 그대로 민간인. 경찰처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타인을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래서 민간조사원의 활동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선으로 한정된다. 지금은 대부분 변호사의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한다. 이러다보니 민간조사원이라는 다소 거창한 이름과는 별개로 활동에 제약이 많다.

사회의 빼뜩한 시선 역시 이들에게는 거북스럽다. 아직 생소한 직업이다보니 일반인들이 민간조사원이라면 대부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거나 불륜에 빠진 배우자를 추적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수도 많다.

아직 제대로 정비된 관련 법규가 없어 누구나 '사설탐정'이니 '민간조사원'이니 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확실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규제를 할 방법이 마땅찮아 양성과정을 정식으로 이수한 사람일지라도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그래서 민간조사원들은 자신의 처지를 '교도소 담장 위에 선 신세'라고 푸념한다. 자칫 한 발만 잘못 짚으면 교도소 마당으로 떨어진다는 자조적인 의미다. 가령 증거자료 수집을 하다가 잠시 한눈을 팔면 사생활 침해가 돼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까닭이다. 한국민간조사협회가 강습과정 중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잘못 되면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가진 합법적인 브로커를 키울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다. 한국민간조사협회에서도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십수 명에 대해 민간조사원 자격을 박탈했다. 최소한의 자정노력인 셈이다.

자격증 역시 정부기관이 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이다 보니 일반인들이 공신력에 의문을 갖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관련 법규 준비는 향후 민간조사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한국민간조사협회 측에서는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민간조사업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렇다할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다.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 회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가운데 민간조사원과 관련한 법규가 없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사회가 복잡해지면 공권력의 손이 미치는 못하는 곳을 메울 민간조사원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안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사설탐정 적발현장 동행

기업의뢰로 짝퉁커피 추적  
한달만에 제조공장 찾아내  
민간자격증 따 500명 활동

7일 새벽 충북 옥천역에서 10분여 외곽으로 벗어나자 산자락에 5000m<sup>2</sup> 규모의 한 커피공장이 눈에 들어왔다. 일반인에게는 이른바 ‘사설탐정’으로 더 알려진 ‘PI(Private Investigator·민간조사원)’ 유우중 씨(45)는 “이 커피공장이 바로 동료들과 함께 추적해 온 곳”이라며 속삭였다.



베트남산 커피 수입사에서 유사상품 단속 의뢰를 받은 사설탐정 유우중 씨가 7일 새벽 충북 옥천군의 한 산자락에 위치한 공장을 급습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유 씨와 동료 PI들은 한 달 전부터 이 커피공장을 찾기 시작했다. “유사상품이 나도는 것 같으니 이를 알아봐 달라”는 한 베트남산 커피 수입사의 의뢰가 들어온 것. 다행히 베트남 커피의 인기를 타고 인터넷에서 거래 중이던 유사상품을 찾아낼 수 있었다. 유 씨가 그 상품을 통해 추적한 이 공장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도 도착했다. 유 씨에게서 정보를 얻은 의뢰인이 고발 조치를 취하자 수사기관이 출동한 것이다. 공장을 뒤지자 생산해놓은 80여 박스의 커피와 진품 브랜드의 마크 및 글씨까지 그대로 베낀 포장지, 박스 등이 줄줄이 발견됐다.

현장 증거를 수집하던 유 씨는 “사실 다른 사건에 비하면 약과”라며 웃었다. 최근에 그를 가장 진땀 빼게 했던 사건은 한 보험사기. “의심 가는 환자가 있다”는 보험회사의 의뢰에 따라 유 씨는 병원에서 잠복을 하면서 교통사고로 목, 척추 등 온몸에 깁스를 해 4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한 30대 남성을 지켜봐야 했다. 그렇게 2주, 보험회사 직원들이 병원을 떠나자 그 환자가 깁스를 풀고 헬스클럽으로 향하는 현장을 잡아냈다.

하지만 이들 민간조사원들의 탐정 일은 쉽지 않다. 수사 권한이 없는 데다 사생활 침해 등 현행법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잠복과 같은 고전적 수법을 많이 사용한다. 정확한 언급은 피했지만 유 씨와 같은 민간조사원의 사건당 수입료는 1000만 원 안팎.

현재 민간조사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곳은 경성대, 한세대 평생교육원, 한국민간조사협회 등 3곳. 교통사고, 사이버범죄, 보험범죄, 조사방법, 지문감식 등 8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한국민간조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유 씨와 같이 민간자격증을 따고 PI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500명. 사실상 탐정 역할을 하는 심부름센터와 흥신소까지 합하면 3000명이 넘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탐정관련 법률은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탐정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민간조사원을 규정하는 특별한 제도도 없다. 몇 차례 법제화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작용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05년엔 심부름센터 직원이 7000만 원을 받고 생후 70일 된 영아와 엄마를 납치·살해한 일이 발생했고 최근 배우 전지현 씨의 휴대전화를 기획사에 감시용으로 복제해준 곳도 심부름센터였다. 대불대 경찰학과 이동영 교수는 “민간조사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등 복잡한 문제가 많다”면서도 “현실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